

조선반도의 정세강장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무력증강책 등 그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북이 두려워하는 군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시키고 외부로부터 첨단 군사장비유입과 자체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군부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끌어들이고 각종 탄도미사일들의 개발과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왔다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초소형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정찰기,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와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추출함, 레이다를 도입하는것과 함께 탄도요격미사일과 장거리요격미사일들의 보유량을 기존의 3배로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 누구보다도 《대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뒤돌아앉아서는 양대거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식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무력증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다.

군사비중액과 그에 따른 무력증강책들은 대결광신자들의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종적행태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최근 남조선보수세력들이 현 《정부》의 그 무슨 《대북저자세》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고 한다.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들이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 노력과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자위적인 군사행동들을 놓고 취하는 당국자의 태도에 대해 북에 심리적지배를 당하고있다. 북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비난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들이 얼마나 위협하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얼마나 커다란 해독적효과를 끼쳤는가 하는것은 과거 보수 《정권》들의 동족대결책들과 그 후과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대결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 《정권》때와 조금도 다를바없는것이다.

명백히 동족에 대한 적대시와 공격기도를 내포하고있는 무력증강소동은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판남, 판승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머리속에서는 그 어느 《정권》보다 무력증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백해무익한 존재

이러한 북남관계가 거래의 지향과 범위에 맞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자면 우선 공화국에 대한 내결적인 자세와 상충적인 태도를 버리고 무력대고 동족을 절고드는 불순한 언행부터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패당이 그 무슨 《대북저자세》를 떠들며 당국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는것은 결국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악화하게 고취하는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북남관계가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제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6.15시대와 함께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리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동으로 과거의 대결시대대로 되돌아가고 조선반도에 엄중한 정세까지 조성되던 실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런 보수패당이 저들의 이익에 찬 행적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동족대결에 미쳐달리우는것은 그야말로 최악에 최를 덧쌓는 범죄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의 보수패당이야말로 그대로 들수 없는 동족대결세력, 반통일세력, 반평화세력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진짜이름은 <살상무기전시회>》

얼마전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가 서울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의 성격과 목적, 그 위험성을 폭로하는 광고물을 실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이름은 《살상무기전시회》 여기서 전시되고 거세되는 무기들이 어디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방위산업전시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COVID-19》대유행과 기후변화상황에서도 전세계는 무기거래에 한해 약 1180억US\$가량을 쓰고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9년기준)

◇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8년 매출은 무려 4200억 US\$, 이중 절반정도가 세계 10대 전쟁기업이 거두어들이

수익, 이들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군사적긴장이 높을수록, 정치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전쟁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니다.

◇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미국의 침공으로 오래동안 고통받아온 아프가니스탄사람들, 지난 20년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약 24만명, 전세계 아프가니스탄난민 약 260만명, 국내 실정민 약 350만명(유엔난민기구 2021.8.16)

◇ 전쟁의 고통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이 있었던 지난 20년동안 세계방위산업체들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보잉 974.97% 상승, 테이슨 331.49% 상승, 록히드 마틴 1235.6% 상승, 제너럴 다이내믹스 625.37%...

지난 20년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한 국가는 바로 미국, 아프가니스탄 무기수입의 74%는 미국산.

◇ 《씨드》 미국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무기, 미국은 지금까지 MD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왔고 남조선과 일본이 이에 동참해주기를 꾸준히 바라왔습니다.

《씨드》는 남북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에선 군사적효율성이 낮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각종 결함이 줄줄이 보고되는 무기죠.

◇ 미국산무기수입 세계 4위 남조선 지난 10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라리아, 아랍사우디국방에 이어 네번째로 미국산무기를 많이 구입한 남조선입니다.

본사기자

반장전면적기부미 바림한 회색

배척받는 정치판, 구린내풍기는 보수야당

남조선언론들이 다음기 《대선》이 《비호감도 올림픽》, 《비호감 대선》의 양상으로 전개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선거날이 몇달앞으로 가까와올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상징후가 관측되고 매년 《대선》에서 투표율이 급락할 사태가 초래될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있다.

여야당이 지지표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민심의 반응은 등지실날 불죽은 아궁치

럼 싸늘하기만 하다. 하기에 언론들은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압도하면서 유권자들속에서 《뿔을 사

는 《정권계승》, 《정권교체》뿐이고 민생은 뒤진다. 《국민의 힘》의 《대통령》 예비후보인 윤석열만 놓고보아도 《120시간노동》, 《아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정권계승》, 《정권교체》뿐이고 민생은 뒤진다. 《국민의 힘》의 《대통령》 예비후보인 윤석열만 놓고보아도 《120시간노동》, 《아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무관심속에 진행되는 《비호감도 올림픽》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신흥탕싸움의 최종승자는?

남조선에서 《국민의 힘》의 《대선》예비후보들간의 대립과 마찰이 최종후보선출을 결정하는 결승선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있다고 한다. 후보들은 후보들끼리 《나만이 정권교체가가능한 후보》라고 광고하며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여념이 없고 그 지지자들은 또 그들대로 폭행, 허위소문류 등 서로 판소리에 하고장단치듯한다것이다.

그중에서도 윤석열과 홍준표의 대결이 가관이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망언목록》을 공개하면 윤석열은 홍준표의 《막말목록》을 꺼내든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본인, 처, 장모 등 서로 판소리에 하고장단치듯한다것이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망언목록》을 공개하면 윤석열은 홍준표의 《막말목록》을 꺼내든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본인, 처, 장모 등 서로 판소리에 하고장단치듯한다것이다.

《선수》들의 열성 《응원자》들이 가만있을수 없는것이다. 윤석열을 물어메치겠다고 홍준표와 류승민이 《단일화》한다. 이번 당원투표에서 윤석열을 찍어야 한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파멸에 이르는 재추항기 정파간이분전

신흥탕싸움의 최종승자는?

남조선에서 《국민의 힘》의 《대선》예비후보들간의 대립과 마찰이 최종후보선출을 결정하는 결승선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있다고 한다. 후보들은 후보들끼리 《나만이 정권교체가가능한 후보》라고 광고하며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여념이 없고 그 지지자들은 또 그들대로 폭행, 허위소문류 등 서로 판소리에 하고장단치듯한다것이다.

그중에서도 윤석열과 홍준표의 대결이 가관이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망언목록》을 공개하면 윤석열은 홍준표의 《막말목록》을 꺼내든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본인, 처, 장모 등 서로 판소리에 하고장단치듯한다것이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망언목록》을 공개하면 윤석열은 홍준표의 《막말목록》을 꺼내든다. 홍준표가 윤석열의 본인, 처, 장모 등 서로 판소리에 하고장단치듯한다것이다.

《선수》들의 열성 《응원자》들이 가만있을수 없는것이다. 윤석열을 물어메치겠다고 홍준표와 류승민이 《단일화》한다. 이번 당원투표에서 윤석열을 찍어야 한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

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후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뿔을 사